

# ‘금서 사냥’ 통과해온 마르크스주의 출판

마르크스주의 출판의 사회사

1980년대 운동권 세대가 ‘출판’ 과 ‘서점업’ 을 문화운동의 실천으로 선택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번역출판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수용은 자유주의적 시각의 해설서, 종속이론, 마르크스 원전 번역의 순서를 밟았다. 서점은 변혁이론과 학생운동을 잇는 ‘보급기지’ 였다.



1980년대 사회과학 서점들은 단순히 상품유통의 공간이 아니라 변혁이론과 학생운동을 잇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사진은 한 사회과학 서점의 내부 모습.

1980년대 한국 출판은 금서(禁書)가 폭증하는 사상적 투쟁기였다. 금서 목록의 대다수는 ‘급진적 이념’, 즉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도서들이 차지했다. 신군부는 1980년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출판사를 대폭적으로 정리했다. 그해 8월 617개 출판사의 등록이 취소됐고, 이는 전체 출판사의 23%에 해당했다. 1985년에도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다. 당시 문공부는 불온사상 서적과 불법 간행물 298종에 대한 무기한 단속방침을 밝혔고, ‘급진좌경이념서적’에 대한 단속은 이 때부터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1980년 7월부터 1987년 6·29 선언까지 7년 동안 서울에서는 일체의 출판사 신규등록이 허용되지 않았다.

## 1982년 경부터 붓물 터지듯 증가해

하지만 정부의 통제 속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출판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이는 1980년대 사회과학 도서의

종수 증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0년 2,276종에서 출발해 1985년에는 그 두배에 가까운 4,276종이 출간됐고, 1987년에 이르면 4,976종으로 정점에 이른다. 발행부수도 1980년 114만부에서 1989년에 이르면 227만부로 경충 뛴다. 사회과학 서적이 모두 마르크스주의 서적에 해당하진 않는다 해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해 이 통계자료는 마르크스주의가 1980년대 중반기에 집중적으로 소개됐음을 알려준다. 좀더 범위를 좁혀서 사회과학 번역도서의 발행종수 현황을 보자. 1980년에는 130종에 불과했지만, 1983년에 오면 436종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이 수준을 1989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제5공화국이 1981년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데올로기 도서의 출판을 부분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었다. 이른바 ‘권위주의적 출판활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도서의 첫 포문을 연 책은 1982년에 출간된 《칼 마르크스》(이샤야 벌린, 신복룡, 평민사)다. 이 책은 발간 40일 만에 5만2천부가 팔려나가 마르크스주의 서적의 시장성과 독서 욕구를 강력하게 증명하기도 했다. 그 후 2개월 동안 출간된 마르크스주의 도서는 총 12종이다. 《소련공산당사》《스탈린이즘》《칼 맑스의 철학과 신화》《칼 맑스의 사상》《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등이 그 면면이다. 출판경향으로 따지면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책들이다. 그것은 이 책들의 출판을 가능하게 한 요소기도 하다.

## 비판적 소개서에서 원전 번역으로 방향 선회해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마르크스주의 비판서들은 자취를 감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책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1985년까지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좌파 사상, 종속이론과 제3세계 사회이론 등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이데올로기 이론, 레닌의 선전선동론 등의 번역출판이 큰 흐름을 이뤘다. 번역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학위를 마치고 들어온 신진 학자들이 도맡았다. 따라서 내용이 서구중심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역사후기는 주로 ‘서구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한국적 실천의식’을 강조하는 내용해설로 채워졌다.

1985년 이후부터는 이른바 ‘원전출판’이 대세를 이뤘다. 원전의 범위는 좁게는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탈린, 마오쩌둥을 위시한 중국의 저작, 넓게는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입각해 서술된 소련의 저작물들이었다. 여기에 주체이론과 주체사관에 입각

한 역사서술 등 북한 원전 출판이 합세한다. 이사야 벌린의 '자유주의적 시각'의 마르크스 평전도 소련콰카카데미의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씌어진 《칼 맑스 전기(전2권)》로 대체됐다. 본격적인 원전출판은 1987년 6·29 선언에 이어 그해 10월 출판사 등록 자유화, 납본필증 즉시교부, 판금도서의 재심과 대폭해제 조치를 내용으로 한 <출판계 활성화 조치> 이후에 시작했다. 그 때부터 이듬해 9월까지 무려 1,701개 출판사가 새롭게 출현했다. 이때 새로운 세대의 사회과학 출판사들도 대거 등장하는데 백두, 대동, 오월, 광주, 남풍, 일송정, 눈, 백의, 버리, 소나무, 친구, 전진, 힘 등으로 총 40여개사가 넘는다.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출판에 뛰어들어**

이렇게 출판사들이 폭주한 이유는 1980년대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이들이 체제변혁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출판

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1970년대가 문학의 시대라면, 19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출판된 원전들을 살펴보자. 마르크스의 《가족의 기원》《자본》《경제학-철학 수고》《프랑스혁명사 3부작》《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와 엥겔스의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반듀링턴》《엥겔스의 독일혁명사연구》, 둘의 공저인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까지 총 14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당시 《출판저널》(제22호, 1988년 6월20자)에서는 마르크스 원전 번역출판을 집중 점검하는 분석기사가 실렸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정운영 교수의 비판적 발언이다. 첫째는 번역자의 신분문제로, 총 14권 가운데 1권의 역자만이 대학교수로 명기돼, 전문학자의 번역작업 참여를 두고 문제삼았다. 다음으로 해설이 빠져 있어 독자들에게 안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중복출판, 번안에 가까운 편집태도, 혼란스러운 표기법 등도 지적됐으며, 이에 일부 출판계는 정교수의 견해를 '원전번역을 전문가주의로만 몰고 간다'고 맞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는 출판물로서의 엄정성과 정치적·대중운동적 활동으로서의 출판 사이에 '원전번역'이 놓여 있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출판의 변혁운동이 상업주의에 물들어 '좌익 상업주의'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모든 주의주장이 사회변혁이란 말로 채색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마르크스주의 출판물이 쌓여가면서 출판사별로 특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창작과비평사는 한국을 제3세계의 시각에서 보려는 <제3세계 총서>를 기획하고 윌러스틴, 앤더슨, 커밍스 등의 진보적 이론가들을 소개했다. 한길사는 <오늘의 사상신서> 시리즈를 통해 1980년부터 10년 동안 121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제3세계와 종속이론》《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사》《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막스 베버의 학문과 사상》 등을 번역 소개했고, 국내저작물로는 《해방전후사의 인식》《1950년대의 인식》《현대공산주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길사의 책 가운데 어느 하나 '판금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이는 노동운동가가 아닌 현직 교수를 필자로 포섭해, '급진 이념'을 '고유한 학술영역'으로 치환시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길사의 이런 전략은 '비판적 사회과학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한 흐름을 열었다. 한울의 <한울총서> 또한 《종속이론과 정통맑스주의》《자본주의국가론》《맑스의 당론쟁사》《에티엔 발리바르의 정치경제학 비판》 등 마르크스주의 '고전'을 주로 펴내며 사회과학 전문출판사의 명성을 굳혔다. 풀빛의 <풀빛신서>는 다양하게 열린 시각으로 서구의 최신이론들을 번역소개했다. 당시 시리즈물을 펴낸 출판사는 그 외에도 청사, 형성사, 광민사, 들베개, 한마당, 산하 등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전초보급기지였던 서점**

당시 출판사들은 검열을 피해가기 위해 책 제목을 온건한 이미지로 바꾸기 일쑤였다. 한울의 《철학개론》은 교과

서로 포장됐지만 원제는 '실천철학으로서의 맑스주의'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이념과 문학》 또한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을, 창작과비평사의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도 '마르크스주의와 형식'을 바꾼 것이다.

한편,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 출판을 '운동' 차원에서 조명할 때, 출판운동의 '조직화'란 측면에서 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서점들은 단순한 상품유통의 매체가 아니라 이들 책을 대학에 공급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은 1982년 건국대 앞의 '인서점'을 시작으로 198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서울 시내만 해도 50여곳을 헤아리게 됐다. 서울대의 '광장' '그날이 오면', 동국대 '늑두', 성균관대 '논장' '풀무질', 고려대 '장백서원', 연세대 '오늘의 책', 그 외 '서강인' '숙명인' '창의' 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하고, 문화공간을 제공해 학생운동을 측면지원했다.

이들 서점은 수십명의 운동조직원이 공동출자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판매수의 가운데 출판사에 지불하는 부분을 줄이면서 조직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뽑아내는 영업방식을 택했고 출판사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감수했다. 또 서점운영자가 출판사를 차리기도 했다. '민중서점' '오늘의 책'의 운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출판사 '이론과실천' '이성과현실사' '태암' 등을 세워 생산과 유통을 연결시켰다.

이 무렵 서점들은 제도언론이 은폐하는 시국사건을 이른바 '불법 유인물'을 통해 보도하는 '지하언론'의 역할도 맡았다. 하지만 이 서점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곳은 서울대의 '그날이 오면', 성균관대의 '논장' 등 불과 7~8군데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든 출판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사회과학 전문서점은 마르크스주의 서적이 집중출간된 1980년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역사적 현상인 셈이다. —강성민 기자